

李炳注의 세계

—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

김 영 화*

< 차 례 >

1. 머리말
2. 호소와 증언의 기법
3. 국가 권력의 폭력과 지식인
4. 히틀러, 그리고 히틀러적인 인간
5. 옥중기/체협과 사상
6. 맺음말

1. 머리말

이병주(李炳注 : 1921~1992)는 1965년 중편소설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세대』지에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6·25 직후인 1954년 장편소설 「내일 없는 그 날」을 부산일보에 1년간 연재한 일은 있지만 그것은 습작에 지나지 않고,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한 데서 시작된다.

1965년이면 그의 나이 마흔 네 살이 되는 해요, 필화사건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가 석방된 직후가 된다. 우리 문단의 관례로 보면 마흔 네 살이 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늦게 출발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늦게 출발했으면서도 그 후 작품 활동을 정력적으로 계속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필화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감 이전에 그가 종사해 왔던 신문사로 복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가 보고 느꼈던 일들을 허구의 양식인 소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소설 상당 부분이 수감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한다.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병주는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고 나서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후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1961년 5월, 나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이 직업(국제신보 주필 겸 편집국장=인용자)을 그만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天性 경박한 탓으로, 정치적으로 大罪를 짓고 10년이란 징역을 宣告받았다. 그런데도 2년 7개월 만에 풀려 나온 것은 天幸이었다.

이 때의 獄中記를 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소설로서 꾸몄다. 대단한 인물도 못되는 인간의 욕망기가 그대로의 형태로서 讀者에게 읽힐 까닭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나의 절박한 感情을 虛構로서 染色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소설로서 어느 정도 成功했는지는 나 자신 알 길이 없으나 <픽션>이 事實 이상의 眞實을 나타낼 수 없을까를 實驗해 본 것으로 내게는 애착이 있다.¹⁾

이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가가 예술적 완성도를 겨냥하기보다 그의 '절박한 감정'을 토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 소설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일간 신문의 주필 겸 편집국장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언론인이요, 지식인이다. 그런 사람의 논설이 화(禍)가 되어 끝내 영어 생활을 했고, 본인 스스로 그 벌(罰)이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부당함을, 그리고 그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작가이기 이전에 인간의 상정이다.

이 논문은 이병주의 생각이나 느낌이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 소설을 점검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다루어진 기법이나 세계가 다음에 발표되는 그의 소설에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도 아울러 살펴보려고 한다.

2. 호소와 증언의 기법

「소설 알렉산드리아」의 시간적 배경은 1960년대 초, 공간적 배경은 이집트의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와 서대문형무소 안이다. 이 소설에는 두 사람의 화자가 등장한다. <형>과 <아우>로 대표되는 이병주의 분신들이다. 이병주는 이 소설에서 자기 자신을 둘로 분화시켜 이야기

1) 이병주 작품집, 『마술사』(아폴로사, 1968), 299~300쪽.

를 진행시키고 있다.

감옥살이에서 체험한 일이지만, 지식인과 무식자는 똑 같은 곤란을 당했을 때 견디어내는 정도가 월등하게 다른 것 같다. 지식인의 경우 감옥 속에 있어도 꼭 죽어야 할 중병에 걸리지 않은 한 호락호락하게 잘 죽지 않는다. 그런데 무식자의 경우는, 육체적으론 지식인보다 훨씬 건강해도 대수롭지 않은 병에 걸려 나뭇가지가 꺾이듯 허무하게 쓰러져 버린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들출 수 있겠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답안을 내보았다.

교양인, 또는 지식인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두 개의 자기로 분화된 다. 하나는 그 난관에 부딪쳐 고통을 느끼는 자기, 또 하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자기를 지켜보고, 그러한 자기를 스스로 위무(慰撫)하고 격려하는 자기로 분화된다. 그러니 웬만한 고통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무하고 지탱하고 격려하면서 견디어낸다. 그런데 한편 무식한 사람에겐 고난을 당하는 자기만 있을 뿐이지 그러한 위무하고 지탱하고 격려하는 자기가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식인은 한 사람의 겪는 고통을 두 사람이 나누어 견디는 셈인데 무식자는 모든 고통을 혼자서 견디어야 하는 셈이다. 지식인의 난관을 견디어 나가는 정도가 무식자보다 낫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을까.²⁾

이 소설의 두 화자인 <형>과 <아우>는 이병주의 분신들이다. <형>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의 이병주이고, <아우>는 그런 자기를 지켜보는 이병주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아우>와 <형>으로 화자가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사건을 진행시키는 기법을 채용하고 있다. '아폴로사'판(1968)에서 그 면(쪽)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 | | |
|--------------|--------------|
| 1. 아우(9쪽) | 2. 형(9~12) |
| 3. 아우(12~19) | 4. 형(19~20) |
| 5. 아우(20~30) | 6. 형(30~31) |
| 7. 아우(31~40) | 8. 형(40~43) |
| 9. 아우(43~67) | 10. 형(67~69) |

2) 『소설 알렉산드리아』 42쪽. 이병주 작품집, 『마술사』(아폴로사, 1968)에 실린 증편소설 『소설 알렉산드리아』에서 인용한 것. 이하 같은 작품에서 인용할 때는 아폴로사판의 면(쪽)수만 밝힘.

- | | |
|-----------------|----------------|
| 11. 아우(69) | 12. 형(69~84) |
| 13. 아우(84~121) | 14. 형(121~131) |
| 15. 아우(131~157) | 16. 형(157~161) |
| 17. 아우(161~163) | |

이병주는 자기 자신을 둘로 분화시켜 수감 생활을 하는 자신과 그런 수감 생활을 하는 자기를 지켜보는 자기로 분화시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분석에서 알 수 있듯 홀수는 <아우>, 짝수는 <형> 이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다. 소설인 만큼 허구가 가미되어 있지만 작가의 체험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도록 화자의 이동을 배치한 것이다.

<형>은 직접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편지 형식을 빌어 전달하고, <아우>는 형을 변호하거나 반성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진술한다. 이런 화자의 이동은 미묘하게 사건을 진술하는 것보다 변화를 주어 독자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소설의 정통적인 기법인 묘사에 의존하지 않고 진술에 의존하는 에세이풍의 기법에는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의 소설을 읽으면 부인물(副人物)이 주인공(主人公)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기법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주인공이 자기 자신일 때(「소설 알렉산드리아」의 경우)도 있고, 그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목격했던 인물들(「겨울밤」의 경우)이거나, 또는 그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인물(「변명」의 경우)들을 화자인 이병주가 부인물이 되어 서술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것보다 편하고 쉬운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 그의 소설을 읽으면 소설을 써서는 여러 차례 개작하면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예술품을 내놓겠다는 정신이 부족한 대신 논설이나 수필 또는 단상(斷想)을 쓰듯 거침없이 써 내려간 듯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그가 다작의 작가가 된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았던 점도 있지만 소설을 쓰는 방법을 가볍게 여기고 마구 써 내려간 그의 소설작법에 그 이유가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문체는 호소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문체는 목격자가 증언하는 형식으로 소설을 쓴다. 「소설 알렉산드리아」가 호소

의 형식과 증언의 형식의 혼합이라면, 「변명」(1972), 「겨울밤」(1974) 등은 증언의 형식을 택하고 있다.

「소설 알렉산드리아」는 자기 자신의 문제는 호소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는 증언의 형식으로 쓴 소설이다. 수감 생활을 하는 자기 자신과 그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목격했던 다른 죄수들의 문제를 쓴 이 소설은 그 소설의 기법도 호소와 증언이라는 혼합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아우>의 시점에서 쓴 사라 안젤과 한스의 이야기는 증언의 형식이다.

그가 작품을 쓰는 기조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문제다.

나는 어떤 작품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도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 수 있을까, 나의 무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지워 버릴 수가 없었다. 죄없이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산다는 것은 법률에 대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죄 자체에 대해서도 치욕이란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³⁾

「소설 알렉산드리아」의 상당부분은 위에 인용한 기조 위에서 씌어졌다. 그러나 그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목격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나, 사라 안젤과 한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기조 위에서 씌어진 것이다.

A) “역사를 위한 변명이 가능하자면 섭리의 힘을 빌 수밖엔 없울텐데요.”

이 때 마르크 브로크 교수는 내게 부드러운 웃음을 보내며 말한다.

“서둘지 말아라. 자네는 아직 젊다. 자네는 역사를 변명하기 위해서라도 소설을 써라. 역사가 생명을 얻자면 섭리의 힘을 빌 것이 아니라 소설의 힘, 문학의 힘을 빌어야 된다.”

“어디 역사뿐인가요? 인생이 그 혹독한 불행 속에서도 슬기를 되찾고 살자면 문학의 힘을 빌 수밖에 없을 텐데요.”⁴⁾

B) “이 선생은 어떤 각오로 작가가 되었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기록자(記錄者)가 되기 위해서죠.”

“기록자가 되는 것보다 황제가 되는 편이 낫지 않겠소?”

3) 이병주, 『허망과 진실-문학적 편력』(기린원, 1979), 71쪽.

4) 「변명」(문학사상, 1972년 12월호), 96쪽.

“나는 내 나름대로의 목격자(目擊者)입니다. 목격자로서의 증언(證言)만을 해야죠. 말하자면 나는 그 증언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섭리의 작용이 나를 감옥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⁵⁾

이 인용문들에 드러나듯 그가 소설을 쓰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려 하고 있다. 그는 목격자로서 증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증언하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쓰고 있다. 이런 호소의 문학, 증언의 문학에 알맞는 것이 그가 즐겨 선택한 화자의 이동과 주인공과 부인물의 설정이다. 따라서 그의 소설 방법은 호소나 증언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의 판단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3. 국가 권력의 폭력과 지식인

이 소설의 집필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필화사건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병주는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나라에 혁명이 일어났다. 그 혁명(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인용자)의 파도에 휩쓸려 형은 감옥으로 가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부려(不慮)의 화(禍)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상이건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번은 감옥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상에 모(角)가 있는 법인데 그 모 있는 사상이 언젠가 한번은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세상과 충돌했을 때 상하는 건 세상이 아니고 그 사상을 지닌 사람인 것이 뻔한 일이다. 나는 감옥살이하는 형을 불쌍하겐 여기지만 그의 감옥행(監獄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네 형은 커뮤니스트인가?”

말썰은 무거운 어조로 물었다.

“천만에 형은 철두철미한 자유주의자지.”(26쪽)

5·16 군사 쿠데타의 명분이 반공의 강화에 있었다. 4·19 이후 반공에 허점이 있고, 그래서 국시인 반공을 강화하자는 것이 쿠데타 주

5) 「겨울밤」(문학사상, 1974년 2월호), 99쪽.

역들이 내세우는 명분이었다. 4·19에서 5·16에 이르는 1년간은 언론 자유가 있었다. 그 때 지식인들 가운데는 언론기관을 새로 창설하여 새로운 통일론을 제창하기도 하고 중립 통일론이 나오기도 했다. 남북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0년대 매카시즘적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주장들이 나오기도 했다. 5·16후 검거 선풍이 불 때 자유주의적 색채를 가진 지식인들이 된서리를 맞기도 했고, 중립 통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말셀이 그 당시 감옥엘 갔다면 코뮤니스트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자유주의자가 왜 감옥엘 가야 하느냐고 의아해한 것이다.

“우리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사실은 알지. 형은 이렇게 분열된 국도를 통일해야 된다는 논설을 쓴 거야. 그런데 그 표현이 나뻐서. 이 이상 한 사람의 희생도 더 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은 해야겠다. 이렇게 썼거든. 글썄 이게 될 말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을 해야했다면 이북(以北)의 통일 방식으로 통일해도 된다는 뜻 아니겠어? 검찰관도 이 점을 추궁했지. 검찰관의 태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말셀은 잠깐 동안 잠자코 있더니 좀더 상세하게 형의 논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중략)

형은 아마 2천 편 이상의 논설을 썼을 것이다. 그 중에서 단죄(斷罪) 받은 논설이 두 편이 있다. 그 논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조국이 없다. 산하(山河)가 있을 뿐이다.」

「이북의 이남화가 최선의 통일 방식, 이남의 이북화가 최악의 통일 방식이라면 중립통일(中立統一)은 차선(次善)의 방법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악시(邪惡視)하는 사고 방식은 중립통일론 자체보다 위험하다.」

「이 이상 한 사람이라도 더 희생을 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은 이룩해야 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딜렘마다. 이 딜렘마를 성실하게 견디고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비로소 활로가 트인다.」

대강 이상과 같은 귀절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조국이 없다.」라는 말엔 진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조국이 없으니 그러한 조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과 설명이 잇달아 있었지만 그런 것이 통할 리가 없었고, 더우기 중립 통일을 주장하지는 안했을망정, 그러한 표현이 위험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더더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반공 국시가 뚜렷한 이 나라에선 용납될 리 만무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을 뱉었다.

“생각해 봐. 말썰. 도대체 그러한 글을 쓸 수 있다는 정신상태가 틀려 먹었다는 것 아냐. 조국이 없다가 뭐야. 또 이런 문구도 있지. 「조국이 부재한 조국」이란. 검찰관과 심판관이 펄펄 뿔 만하잖아? 정신병자가 아닌 담에야 그렇게 쓰지 못할 거야. 평범하게 분수나 지키며 살아야 할 인간이 뭣 잘 낫다고 어수선한 글을 썼는가 말이야.”(26~28쪽)

작가의 분신인 <아우>의 말을 통해서 필화사건과 옥고를 치르게 된 일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드러낸 대목이다. 논설 그 자체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거나 그에게 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한 것이 아니라, 좀더 앞뒤를 살펴보고 글을 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반성적 성찰이다. 개인의 사상이 경직된 법 적용(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참하게 된서리를 맞았다는 아픔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가는 그 자신의 감옥행을 납득할 수가 없었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의식 깊은 곳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 작가의 경우만이 아니다. 그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형무소에서 만났던 죄수들 가운데도 억울한 희생자가 많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의식은 「철부채」(1969), 「겨울밤」(1974) 등의 작품에서도 취급되고 있다.

우리의 현대사, 그 가운데서도 분단시대에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당한 법 적용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를 고발하고 증언하고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 이 작품을 쓰게 만든 힘일 것이다.

이병주의 또 하나의 분신인 <형>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자기의 생각을 토로하고 있다.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벌만 받는 것처럼 따분한 처지란 없다. 그런데 이제야 나는 나의 죄를 찾았다. 섭리(攝理)란 묘한 작용을 한다. 갑(甲)의 죄에 대해서 을(乙)의 죄명(罪名)씩워 처벌하는 교묘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꼭 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인간인데 적용할 범조문이 없을 때 섭리(攝理)는 이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격언(格言) 그대로 섭리의 멧들은 서서히 같되 가늘게 간다. 나는 나의 죄를 헤아리느라고 요즘 제대로 잠을 못잔다. 남의 마누라를 탐한 일이 없는가. 여자의 순정을 짓밟은 일이 없는가.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 없는가.(30~31쪽)

그가 썼던 논설 그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논설을 쓴 자기는 인간인 이상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 왔을 것이다. 그런 죄 대신에 논설이 문제가 되어 벌을 받은 것은 섭리의 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투영되어 있다. 그는 논설 자체가 벌받을 일이 아닌데 자기는 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히틀러, 그리고 히틀러적인 인간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이집트의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로 설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舞臺를 「알렉산드리아」로 택한 것은 그 곳이 東西文化의 交流地이며 植民勢力과 被植民勢力의 衝突로 빛은 混沌의 땅이며, 뿌리 없는 인간들의 향수가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공연히 異國情緒를 造作한 것은 아니다.⁶⁾

이병주의 분신인 <형>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또 하나의 분신인 <아우>는 알렉산드리아에 가 있었다. 그것은 수감 생활을 하는 자신과 그런 자신을 자유로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자신을 설정해 놓고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히틀러와 히틀러적인 인간에 의해 희생된 사람인 스페인 사람인 사라 안젤과 독일인 한스가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설정하고, 국가의 폭력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프린스 김(아우=인용자)도 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국가 권력의 희생자들이요, 뿌리 뽑힌 인간들인 이들이 합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 소설의 화자인 <아우>와 나치 독일의 희생자인 사라 안젤과 한스는 피해자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피해자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이기 때문이다.

사라 안젤은 스페인 출신의 무희다. 그녀는 30여년 전 스페인 북부

6) 이병주 작품집, 『마술사』, 300쪽.

바스크지방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에 살고 있었다. 30여년 전인 1937년 4월 26일 나치 독일군은 프랑코 군부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게르니카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폭격 연습을 감행하여 1천 여명의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했다. 그 때 사라 안젤의 가족들도 희생된다.

30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날의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예배당의 첨탑(尖塔)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은 게르니카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잡화상을 하고 계셨지요. 동무들과 거리에서 놀고 있었는데 돌연 굉음(轟音)이 들리잖아요?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죠. 그랬더니 수십대의 비행기가 나타났지요. 우리 어린 애들은 “야, 비행기 온다. 비행기 온다.” 하고 손뼉을 치며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 때만 해도 비행기란 신기한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소리가 터지며, 아니 그런 소리가 터진다고 생각했을까 말까 하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어 버렸어요.(중략) 정신을 차리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렀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동생들은 간데없다가 없었습니다. 그 폭격 때문에 모두 죽어 버린 거지요.(중략) 그 비행기가 독일 비행기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린 마음으로도 독일에 대한 저주감을 가졌지요. 아버지 어머니 또 오빠와 어린 동생들의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지요.(중략) 저는 비행기를 열 대만 사서 거기 폭탄을 가득 싣고 독일의 어떤 도시, 꼭 게르니카만한 크기의 도시를 폭격할 집념(執念)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저와 같은 처지의 스페인 남자를 비행사로 만들고……(61~62쪽)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폭력을 경험한 <아우>는 나치 독일의 폭력의 희생자인 사라 안젤과 쉽게 친해진다. 그리고 그 자신도 폭력의 희생자라는 것을 슬회한다.

“제가 형하고 일본의 동경서 살고 있을 무렵, 저의 하숙집의 옆집 사람이 무척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온 집이 꽃 투성이라 별의 별 꽃이 다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의 아침저녁으로 꽃시중 드는 성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즉 형과 나는 그 사람을 대단히 좋아했었지요. 그런데 어떤 기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전직(前職)일본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동포를 고문하고 치사케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위인이란 사실도 알았지요. 그 자를 아는 사람은 그 자의 이름만 들어도 밥맛이 떨어질 지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중략) 우리 동포를 죽도록 고문하는, 고문할 수 있는 마음과 꽃을 좋아하는 마음과 어떻게 유관(有關)할까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있지

요. 꽃을 사랑하는 데서 인정의 아름다움을 배우지 못한다면 꽃은 악마의 마음도 즐겁게 하는 갈보 같은 것이 아니냐.”(중략)

“프린스 김(아우를 지칭=인용자)의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꽃을 좋아했지요. 꽃 중에도 장미를 좋아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읽었죠. 독일 사람들이 2차대전 중에 여러 군데 강제 수용소(強制收容所)를 만들곤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 가운데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제일 컸답니다. 그 곳에선 매일 수천명씩 사람들을 게스실에 넣어서 죽였대요. 죽이고는 그것을 불살라, 재를 만들고 그 재를 수용소 인근에 뿌렸대요. 그 수용소의 마누라는 죽은 사람의 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세공물(細工物)을 만들 만한 꼼직한 여자예요. 사진을 보니까 잔인하기 이룰데 없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썩 장미를 잘 가꾸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의 재를 비료로 해서 말예요. 연합군이 그곳엘 가 보니 수용소장 사택(舍宅)의 뜰에 장미가 만발하고 있었다랍니다. 전 그 얘기를 알고부터 장미만 보면 구역질이 나요.”(56~58쪽)

화자인 <아우>와 사라 안젤은 두 사람 모두 국가 권력의 희생자이다. 특히 <아우>는 일본 제국의 국가적 폭력의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5.16 후 군사정권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라 안젤은 그녀의 가족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복수의 집념을 버리지 않고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비행기가 독일 비행기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린 마음으로도 독일에 대한 저주감을 가졌지요. 아버지와 어머니 또 오빠와 어린 동생들의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지요. 그런데 원수를 갚기는커녕 보시는 대로 이 모양이니…… 그러나 저는 비행기를 열 대만 사서 거기 폭탄을 가득 싣고 독일의 어떤 도시, 꼭 게르니카만한 크기의 도시를 폭격할 집념(執念)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저와 같은 처지의 스페인 남자를 비행사로 만들고…… (중략) 이게 지금의 꿈이죠. 이 일을 해 놓고 나면 저는 아무렇게 되어도 좋아요.”(62쪽)

화자인 <아우>는 일본 제국의 희생자이고, 또 5·16 후의 폭력적 권력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한다든가, 저항을 한다든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그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탓하면서 사라 안젤을 돕기로 한다. 그때 또 하나의 특이한 인물이 <아우>의 앞에 나타난다. 독일인 한스다.

한스와 사귀게 되면서 그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

“난 독일 사람이란 건 싫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천재는 별도로 하고 일반 독일인에 대해선 일종의 증오감을 갖고 있지.”(중략)

“독일인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많겠지. 나는 솔직하게 그걸 인정해. 독일인인 나 스스로 독일인을 싫어하니까. 현대 프린스 김이 독일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지?”

“내 형님이 독일인을 싫어하거든. 나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 형의 영향을 받은 거지.”

“당신 형은 왜 독일인을 싫어하지?”(중략)

“내 형은 히틀러를 미워하지. 아마 형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히틀러와 히틀러적인 인간일거야. 형은 말버릇처럼 했지. 내가 꼭 살인을 승인해야 할 유일한 경우가 있다면 히틀러나 이와 유사한 족속들에게 대한 살인이라고.”

“히틀러가 독일인 전부는 아니잖아?”

한스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있었다.

“형의 의견을 빌리면 히틀러를 만들어낸 것은 독일인이고 그러한 독일인은 결국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히틀러가 대죄(大罪)이고 인류의 적이라면 그를 열렬히 지지한 독일인은 전부 그의 공범(共犯)이라는 거지.”(89~90쪽)

한스는 독일인이지만 그 자신도 히틀러의 게슈타포에게 가족들의 회생을 당했다. 게슈타포에 의해 병약한 동생과 어머니를 잃었던 것이다.

그는 2차대전에 출정했다가 패전 후 귀향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게슈타포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가족을 죽게 만든 게슈타포의 하수인이 그가 알고 있던 엔드렛드란 자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 자가 가명으로 피신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로 도피해 다닌다는 것을 알고, 그 자를 잡아 복수하려고 세계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알렉산드리아에 오게 된 것이다.

한스의 동생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다. 요한은 병아리가 죽는 것을 보아도 가슴 아파하는 심약(心弱)한 소년이었다. 아마 평생 동안 재미 한 마리 밝아 죽이지 못했을 것이란 그런 소년이었다. 그 소년이 형이 출정한 후인데, 그의 친구인 유태인 소년 하나를 자기 집 마구간의 뒷층에 숨겨 주었다. 그 사실을 게슈타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엔드렛드란 놈이 말을 빌리러 와서 우연히 알아냈다. 유태인 소년은 물론 강제수용소로 끌려 갔다. 동시에 요한 소년은 게슈타포의 유치장에 감

금했다. 거기서 요한은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다. 또 숨겨 놓은 유태인이 있을 것이니 바로 대라는 것이다. 요한은 당시 병력(兵力)이 모자라서 그 보충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던 시국임에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체질이었다. 이와 같이 몸도 마음도 약한 요한이 그 지독한 고문을 이겨낼 도리가 없었다. 그는 드디어 고문대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사실을 안 요한의 어머니는 광란 상태가 되어 게슈타포엘 찾아가 시체만이라도 내 달라고 호소했다. 게슈타포는 모른다고 잡아땀다. 그러던 참인데 어떤 농부가 요한의 어머니에게 귀뜸을 했다. 언젠가의 새벽 게슈타포의 차가 마을 건너편 산으로 뺏인가를 운반해서 거기서 그걸 묻은 모양이더라고. 요한의 어머니는 농장의 인부들은 동원해서 그 산을 뒤졌다. 그리고 최근에 흙을 건드린 것 같은 곳이 있기에 파보았더니 요한의 시체가 나타났다. 전신에 타박상, 등뒤엔 전기 인두로서 지진 흔적, 손목엔 전선을 감은 흔적, 두개골은 거의 쪼개질 정도로 부셔져 있는 처참한 꼴이었다.(94~95쪽)

한스는 동생과 어머니를 죽게 만든 범인을 찾기 위해 평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라나 한스나 모두 히틀러와 히틀러적인 인간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소설의 화자인 <형>과 <아우>도 식민지시대에는 일본 제국주의 자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경험했다. 그리고 5·16 후에도 국가 권력의 의해 희생되었다. 이 소설에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나치나 일본 제국주의자나 5·16 후의 권력자들인 군부 세력이나 모두 폭력을 휘두르는 똑 같은 부류라는 암시가 있다. 때문에 프린스 김(아우)은 사라 엔젤과 한스와 의기가 투합하고 있다. 다르다면 사라와 한스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수의 집념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프린스 김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병주는 중편소설 『마술사』를 발표하고 나서 이 작품에서 의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저항의 한 전형을 그려보려 했다는 것이다. 『마술사』의 주인공을 인도인으로 설정한 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서 그만한 인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소설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복수의 집념을 버리지 못하는 인물로 스페인 여성과 독일인 한스를 설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 사라 엔젤이나 한스, 그리고 인도인인 크란파니와 같은 인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함으로써 나라를 빼앗긴 민족, 또는 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 민족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이 점이 이 대목에서 이병주가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5. 옥중기/체험과 사상

중편소설인 만큼 『소설 알렉산드리아』는 서술 방법이나 서술의 초점도 다양하고 취급된 문제도 여러 가지다. 이 소설의 핵심은 자신의 수감 생활에 대한 억울함과 법 적용의 문제에 대한 호소에 있지만, 옥중 생활을 통해서 목격했던 일과 옥중 생활을 통해서 사색했던 일들도 산발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수감 생활을 하는 <형>이 알렉산드리아에 가 있는 <아우>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은 그가 수감 생활을 통해서 사색했던 일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병주의 문학을 해설한 이광훈은 이 소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출세작이자 대표작이기도 한 『소설 알렉산드리아』는 자신의 옥중 생활에서 얻은 체험과 사상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소설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화자인 <나>에 의해 그려지고 있는 <형>이며, 그 <형>은 작가의 사상을 대변해 주는 분신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우>인 <나>에게 보내진 형의 편지는 작가의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격조 높은 에세이들이다.⁷⁾

형이 아우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에세이 가운데 이병주의 사상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몇 가지는 점점해 볼 가치가 있다.

나와 같은 방에 있는 K는 아직도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정역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처지처럼 딱하고 우울한 건 없다.(중략)

7) 이광훈, “역사와 기록과 문학과……” 『한국현대문학전집 48』(삼성출판사, 1979), 436쪽.

그는 말한다. 나의 죄는 이 나라를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여러 나라와 같은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웅분한 노력을 다한 죄밖에 없다. 소가 겨울 동안 쓸쓸해 할까봐 외양간의 벽에도 풍경화를 그린 덴마크의 농부와 같은 농부를 이 땅에서도 만들어 보자고 노력한 죄밖에 없다. (81~82쪽)

K가 어떤 죄로 징역을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다. 1960년대 초의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들이다. 그 가운데는 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에 기울 어지지 않은 나라도 있었다. 그런 나라가 바람직한 나라가 아니냐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는 사상성을 의심받았다. 특히 5·16직후가 그랬다.

4·19에서 5·16에 이르는 1년 동안은 언론 자유가 있었던 시기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했다가 5·16 후에 된서리를 맞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다. 그 때 희생된 사람이 K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K로서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징역을 사는 사람보다 더 고통이 클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병주의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같이 수감 생활을 하는 K도 같은 상황이다.

이 문제는 이병주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남 풍물지」(1972)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죄인이란 무엇일까. 범죄란 무엇일까. 대영백과사전은 “범죄…… 형법 위반의 총칭”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고, 제임스 스티븐은 “그것을 범하는 사람이 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라고 되어 있고, 유식한 토마스 홉스는 “범죄란 법률이 금하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 형법 어느 페이지를 찾아 보아도 나의 죄는 없다는 얘기였고, 그 밖엔 어떤 법률에도 나의 죄는 목록에조차 오르지 않고 있다는 변호사의 얘기였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십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률이 아마 뒤쫓아 오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대영백과사전도 스티븐도 홉스도 나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죄인이란 권력자가 ‘너는 죄인이다.’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사람이 다.8)

8) 「예남 풍물지」, 이병주 작품집 『망명의 늪』(서음출판사, 1978), 127~128쪽.

작가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에낭퐁물지」의 <나>에 의해 진술되는 이 이야기는 이병주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죄인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 문제다. 이런 문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병주는 수감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절감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죄인이란 권력자가 ‘너는 죄인이다.’라 하면 그렇게 되어 버리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의 편의에 의해서 사람의 죄가 결정되는 현상을 고발 증언하고 있는 셈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K의 이미지는 「절부채」(1969)의 유선생의 이미지와 겹친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글을 쓰다가 혼이 난 사람이 유선생이다. 그렇게 혼이 난 후부터는 몸을 사리고 도피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젊은이들로부터는 그 “부드러운 눈빛 저편에 적어도 무시무시한 아나키즘쯤 깃들고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받으면서도 혼이 난 후 몸을 사리는 지식인의 모습이 이병주가 수감 생활을 할 때 목격했던 K의 후일의 모습일지 모른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을 살고, 석방되어 나와서도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병주가 아닐까.

어제 J라는 청년이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흘러 들었다. 시간을 쏙아 보니 우리들이 한창 식사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다. 불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인간 도살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황제는 보리밥덩이를 분주히 입속에 집어넣으면서 내 속의 돼지를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남이 사형을 집행당한다고 해서 내가 밥을 먹지 말아야 할 법은 없다. 죽는 자로 하여금 죽게 하라!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에 사형을 당한 것이겠지.

어젠 청명한 날씨였다. 나뭇가지에 미풍이 산들거리고 새는 흥겹게 재잘거렸다. 이러한 날, 드높은 하늘 밑에서 그 밀실에서 법률의 이름을 빌어 사람을 교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123~124쪽)

어제 조용수가 사형집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흘러 들었다. 시간을 쏙아 보니 한창 식사를 하고 있던 무렵이었다. 불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옛날의 내 제자를 도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나는 보리밥덩이를 분주히 입속에 집어넣어 내 속의 돼지를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제자가 사형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밥을 먹지 말아야 할

까닭은 없다.⁹⁾

1965년에 발표한 「소설 알렉산드리아」에 J라고 되어 있던 것을 1974년에 발표한 「겨울밤」에서 J 대신 조용수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다. 화자와 조용수와의 관계를 사제지간이라고 밝혔을 뿐 같은 문장이 다. 이어지는 문장도 같다.

감옥에서 경험한 사형 문제는 그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형 문제와 사형 폐지 문제는 소설을 달리 하면서도 거듭 취급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이 감옥에서 처형된 사형수가 57명이 넘는다고 한다. 57명의 생명이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나는 그 푸르게 페인트칠한 조그마한 문과 그 곁에 서 있는 프라타나스의 아직 어린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중략) 아아,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면 사형 폐지 운동이나 할까 보다.(127~128쪽)

작년만 해도 이 감옥에서 처형된 사형수가 57명이나 된다고 한다. 57명의 생명이 그 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 조용수는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아,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는 날부터 사형 폐지 운동을 해야겠다.¹⁰⁾

이병주는 감옥에서, 그것도 군부의 거친 법 집행 당시의 감옥에서 사형 집행의 문제점을 보았고, 그것을 소설을 달리하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는 그에게 큰 문제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6. 맺음말

『소설 알렉산드리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묘사나 서사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소설의 기법에서 벗어나 에세이 형식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예술가라기보다 에세이스트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그는 많은 에세이와 논설

9) 「겨울밤」(문학사상, 1974년 2월호), 92쪽.

10) 「겨울밤」, 93쪽.

을 써 온 작가다.

둘째, 부인물이 등장해서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관점(시점 : 서술의 초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부인물은 이병주의 분신이거나 그림자다. 이런 방법은 『마술사』(1966), 「질부채」(1969), 「예낭 풍물지」(1972), 「변명」(1972), 「겨울밤」(1974), 「내 마음은 돌이 아니다」(1975), 「중랑교」(1975), 「여사록」(1976)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기법은 자아가 강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욕이 많을 때 많이 동원되는 기법이다. 20년대의 김동인에게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셋째, 같은 소재,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온다. 이를테면 국가 권력의 폭력의 문제는 장편소설인 『관부연락선』(1968~1970), 재판의 문제점과 사형제도의 문제는 「예낭풍물지」(1972), 「겨울밤」(1974)에서도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겨울밤」과 「내 마음은 돌이 아니다」는 같은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소재나 주제가 같다. 이것은 한 주제를 심화시키는 점도 없지 않지만 같은 소재를 반복함으로써 진부함 느낌을 준다.

넷째,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넓다. 이 소설은 이집트의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까지 공간을 확대시키고 프랑스인, 스페인인, 독일인, 이집트인까지 동원해서 스케일이 크다. 그것은 『관부연락선』에서 일본인, 영국인, 인도인, 중국인을 등장시키고 소설의 무대도 한국, 일본, 영국, 중국까지 넓혀 스케일을 확대시켰으며, 『마술사』에서는 인도인을 등장시키고, 무대를 버마까지 확대했다. 이것은 그의 시야가 그만큼 넓다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이 소설은 그의 소설의 원형이 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다룬 문제가 이어서 그가 발표하는 소설에서도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철저히 분석하면 그의 문학세계는 윤곽이 드러난다. 그것은 이광수의 『무정』(1917)을 분석하면 『흙』(1932), 『유정』(1933), 『사랑』(1938) 등 이광수 문학의 핵심이 떠오르는 것과 비슷하다.